

시키보의 전략 소재 “로얄 사라”, 2007년부터 판매

시키보는 인도 면을 사용한 소재 “로얄 사라”를 새로 개발하였다. 2006년 4월에 새로 만든 전략 소재 기획 추진부의 기능을 활용한 전략 소재의 첫째 상품으로, 2007년 춘하절부터 판매한다. 판매 계획은 첫 해에는 2억 엔, 3년 후에는 6억 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얄 사라”는 시키보가 직접 품질 관리하며, 재배한 독자적인 인도 면을 사용하여 만든 소재이다. 인도 면은 ① 섬유장이 길고 부드러운 촉감이 있고 ② 인도 면의 독특하고 품위 있는 윤기와 광택이 있고 ③ 나긋나긋하면서 섬세한 맛 등의 특징이 있다. 직물에서는 셔츠, 팬츠, 워킹으로 니트에서는 아우터, 이너, 스포츠용 등으로, 침장에서는 커버링, 이불잇, 타월 등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면화는 초장면을 재배하는 데 적합한 토양과 기후를 갖추고 있는 인도 남부에서 재배하고 있다. 품종이 다른 목화끼리 교배하여 좋은 유전자를 키워가는 하이브리드종을 만들고 있다. 면화의 채취 방법은 손으로 따고, 지닝(ginning) 공정은 롤러 진으로 조면하였다.

롤러 진은 두 개의 롤러 사이로 실면(實綿 ; 씨가 들어 있는 목화)을 통과시켜 씨에서 면 섬유를 떼어내는 방법이며, 톱니로 섬유를 거칠게 뜯어내는 소 진(saw gin)보다도 부드러워 섬유의 손상이 적다. 그러므로 천연의 밀랍을 그대로 살림으로써 인도 초장면의 독특한 광택과 윤기, 미끈거리는 촉감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인도 면의 약점이라고 하는 협잡물에 대하여는 면화 단계, 방적 단계에서 철저히 제거하고 있다. ♣